

간경화·간암 등 유발 ‘NASH’... K제약 치료제 개발 ‘순항’

〈비알코올성지방간염〉

글로벌 대형 제약사 번번이 개발 실패 전 세계적 유병률 2~4% 치료제 아직 한미약품, 가시적 성과로 주목 받아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을 K-제약이 정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 세계적으로 NASH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LG화학 등이 NASH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NASH는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데도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간내 염증 및 섬유화를 특징으로, 간경화, 간암, 간부전 등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2~4%, 미국의 경우는 3~5%에 달하지만 개발된 치료제는 없다.

하지만 개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한미약품은 지난 19~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흉부학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렙스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특발성 폐 섬유증(IPF)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FDA) 위장약자문위원회(GIDAC)는 지난 19일 인터셉트 파마슈티컬스의 NASH 치료제 오칼리바(오베티폴산) 신약승인신청(NDA)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2기 혹은 3기 섬유증을 동반한 NASH 환자에서 오칼리바 25mg의 이점이 위험보다 더 크다”라는 질문에 자문위원 16명 중 12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2명이었다. 자문위원 16명 중 15명은 오칼리

바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747-303의 데이터가 제출 및 검토될 때까지 승인을 연기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자문위원회 투표는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승인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

화이자도 지난 2020년 NASH 치료 후보물질 임상 1상을 중단했으며, 안센 역시 지난 2월 애로우헤드 파마슈티컬스로부터 도입한 NAHS 신약후보물질

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NASH 치료 혁신신약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로부터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글로벌 임상 2상을 ‘계획 변경 없이 지속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19~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흉부학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특발성 폐 섬유증(IPF)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FDA는 2022년 7월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N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P CB(원발 담즙성 담관염) 및 PSC(원발 경화성 담관염), IPF(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

정한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삼중작용 혁신 바이오신약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다양한 적응증에서 의미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과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 한 NASH 겸 2형 당뇨병 치료제 ‘DA-1241’의 미국 임상 2상을 최근 FDA로부터 허가 받았다. 올해 3분기 안으로 임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마친다는 구상이다. 일동제약 역시 지난해 8월부터 NASH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유한양행, LG화학도 임상 1상 단계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기준으로, 2021년 2270억원 규모에서 2031년에는 약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추경호 “韓 세계은행의 ‘혁신·기술 허브’ 거듭나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10주년 韓 핵심적 파트너로 협력관계 구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개도국 고위급인

사, 국내 협력기관 및 민간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은행의 주요 공여(供與)국이며 수원(受援)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독특한 경험 있다”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은행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쌍방향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은행이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가 가진 개발 관련 새로운 역량과 리더십이 인정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한국사무소가 세계은행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기술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국이 강점을 갖는 기후·디지털 분야는 최근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요인이므로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해 세계은행 내 혁신·기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개발경험과 재원이 풍부한 역량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무소가 개발경험을 분석해 개별국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소중한 경험을 세계은행이라는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해나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한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는지 등을 분석한 한국혁신보고서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나 비에르데 WB 사무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이번주 ‘WB-KDI 혁신보고서 발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해 국내외 뉴스 가 한 권에

2023 연합연감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종합 사료집 '2023 연합연감'이 출간됐습니다. '2023 연합연감'은 17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지난해 국내외 분야별 주요 뉴스와 이슈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핫뉴스를 다룬 '초점'에서는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개막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또 이태원 헬러원 침사, 초연결 사회의 허점을 드러낸 키키오 장애, 부동산 급락 등 대형 이슈와 사회·경제적인 과제를 짚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등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사고를 일지별로 정리해 충실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주요 뉴스와 이슈에 사진, 도표, 각종 통계, 그래픽 등을 함께 편집해 지난 1년간 일들을 한눈에 보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료 편에는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토대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등도 담았습니다. 또 김주애, 김여정 등 지난해 조명받은 주요 인물 정보와 같은 특수 콘텐츠를 수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법·사법·행정부와 각종 공공 기관에 연합연감을 무료로 기증합니다.

규격 4×6배판 양장본
분량 1천336쪽 **정가** 18만원